

## 산.업.정.책.연.구.원. 경영자독서모임

경영자와 저자가 만나면 경영이 바뀐다



IPS(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리더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 경영자, 사회 각계인사,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경영자독서모임(Management Book Society 이하 MBS)을 운영하고 있다. 책의 저자나 역자를 직접 초대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모임으로 책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모임의 특징이다. 또한 책 내용 외에도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집필과정의 에피소드와 책에 소개되지 않았던 알짜 정보들을 듣는 것 또한 이 모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이다.

MBS의 진행을 맡고 있는 IPS 교육본부 이예정 주임은 “도서관을 위주로 선정돼 트렌드를 읽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경영·인문·사회·과학 등 전 분야를 다루므로 균형있는 지식 습득이 가능하다”며 “MBS에 오래 참석한 회원들의 수준은 강사에 못지 않다”고 소개했다.

MBS의 시작은 지난 1995년이였다. ‘선진국 최고 경영자들은 한 해 30권 이상의 경제 관련 책을 읽는데 한국의 경영자들은 어떤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995년 당시 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이던 조동성 서울대 교수가 중심이 돼 당시 남궁석 정통부장관, 김정태 주택은행장, 백낙환 인제대 총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김재철 동원증권 회장,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이 사랑방 비슷한 모임을 만들었다. 모임이 알려지면서 ‘나도 1주일에 한 번은 책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을지로1가 하나은행 본점 21층에 있는 MBS 강의장 풍경은

늘 한결같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의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통해 책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다보니 강사로 나온 저자나 번역자들은 이 시간이 오면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된다.

실제로 질문들은 날카롭고 주저함이 없다. 지난 11월 15일 《통하고 싶은가? - 성공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쓴 강은미(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한 ‘학생’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시킨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론과 달리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교육해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실제로 짧은 시간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진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강생이 주로 CEO를 비롯한 경영자들이다 보니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자라도 강사로 나서게 되면 그 긴장감은 배가 된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을 쓴 홍세화 씨가 왔을 때 인제대 백병원 백낙환 이사장은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노조는 전임자의 임금을 노조에서 지불하는 유럽과는 달리 사용자측에서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홍선생 또한 이 땅에서 좀더 살아야 보면 지금의 생각과 함께 진실의 양면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도 힘의 논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



MBS는 기수 단위로 운영된다. 참석자 책상 앞에 놓일 이름표들.

것”이라며 “서로가 공익이라는 목표 아래,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용인할 수 있는 관계가 빨리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예정 주임은 “크고 작은 독서모임이 여러 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주로 온라인을 통한 모임이 많고, 서평 또는 도서 요약물을 제공해주는 모임이나 단체가 대부분”이라며 “MBS처럼 오프라인에서 대규모의 회원을 가지고 매주 강의가 열리는 모임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인들과의 교류 및 휴먼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독서모임과는 달리 모임이 끝난 뒤 별도의 2차나 뒤풀이가 없는 등 MBS는 책을 읽고 저자를 만나고 독서경영을 해보려는 의지가 강한 회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모임이 끝나자 강사와 명함을 나누는 몇몇을 빼고는 제 빨리 강의장을 떠났다.

MBS는 기수 단위로 운영되는데 한 기수는 6개월간 20권 정도의 책을 소화하게 된다. 경영·경제 서적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과학·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선정된 우수도서를 매주 한 권씩 다룬다. MBS 도서는 주임교수인 조동성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필두로 10여 명의 도서선정위원들이 도서를 선정한다. MBS는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모임이므로 책의 내용 이상으로 저자의 강의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역자보다는 저자가 많다.

현재 19기 MBS는 2004년 10월 25일부터 2005년 3월 21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동성 교수의 《21세기를 위한 국

제경영》으로 시작된 강의는 송병락 교수의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홍성태 교수의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강은미 교수의 《통하고 싶은가?》 등을 진행했고(11월 15일 현재), 조유전의 《한국사 미스터리》 경일약품(주) 전전문 이사의 《경주 최부잣집 300년 비밀》 아주심리상담센터 이민규 소장의 《1%만 바뀌도 인생이 달라진다》 강원대 생물학과 권오길 교수의 《바다를 건너는 달팽이》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의 《미학 오디세이 3》 텔런트 김혜자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될 예정이다.

MBS는 회원제로 운영이 되며 크게 출석회원과 통신회원으로 구분이 된다. 출석회원은 강의장에서 직접 저자와 대면하며 강의를 듣고 질의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회원이고, 통신회원은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강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강의 교재가 교부된다. 지난 18기의 경우 출석회원이 100여 명, 통신회원이 약 200여 명이었다. 또 저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40명 이상의 회원이 강의실을 찾는다. **출처**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